

전주종합경기장 이전사업 가시화

지방행정연구원, '증축·야구장 건립' 타당성 조사 최종 보고서 제출 시, 11월초까지 투자심사 등 사전행정절차 거쳐 2019년 공사완료 예정

전주의 심장부인 종합경기장 부지를 시민 품으로 돌려주기 위해 육상경기장과 야구장을 반월동 월드컵경기장 주변으로 이전하는 사업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10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9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전주 종합경기장 증축 및 야구장 건립'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 최종 보고회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도출한데 따라 행정자치부에 중앙투자심사를 신청할 계획이다.

이번 용역은 전주월드컵경기장 인근 12만2958㎡ 부지에 전주월드컵경기장 보조경기장을 1종 육상경기장을 증축하고 야구장을 신축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조사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비용편익(B/C) 분석은 경제성을 따지는 기준치인 1.0을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종합경기장은 공익시설로서 비용편익 기준치를 넘어서는 경우는 거의 없다.

반면 정책적 타당성 부분에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주 종합경기장이 지난 1980년에 증축된 이후 현재까지 35년 이상 사용되면서 노후화가 심하고 도내 국제 육상대회를 치를 수 없는 제1종 육상경기장이었다는 현실 등이 타당성에 감안됐기 때문이다. 또한 전주시가 사업 추진에 매우 강

한 의지를 가지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과 현 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안전상에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는 시급성 측면에서도 일정한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총 사업비의 40% 범위 내에서 국비를 확충하기 위해 노력하거나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재원조달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또 사업완료 시점도 당초 예정된 2018년 12월에서 2019년 12월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사업규모면에서는 관람석 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권장기준인 1종 육상경기장 1만5000석, 야구장 8000석으로 계획돼 적정한 것으로 평가했다.

연면적은 당초 3만1500㎡에서 2만1600㎡로 공용면적 등을 조정하는 권고안을 제시했다.

이에 시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권고안으로 중앙투자 심사를 의뢰할 예정이다며 심사를 통과하면 기본 및 실시시설계 용역 등을 거쳐 오는 2017년 말부터 2년간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 사업을 통해 전주월드컵경기장 일원은 다목적·다기능을 갖춘 복합 스포츠 타운(World Sports City)으로 조성되며 기존 종합경기장 부지는 전주만의 독특한 랜드마크로 재생해 시민의 품으로 돌려줄 계획이다.

시는 1종 육상경기장과 야구장이 건립되면 각종 국내의 체육경기 유치와 생활체육의 저변확대 등을 통해 스포츠를 통한 사회적 교류가 활발해져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전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연수 전주시 생태도시국장은 "전주시의 오랜 숙원사업인 종합경기장 이전사업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면서 "시민과의 약속 전북도와와의 양여 계약에 대해 성실히 이행하고 시민의 공감과 합의에 기반한 전주종합경기장 이전사업이 탄력을 받아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타당성조사는 총사업비가 500억 이상인 경우 전문기관인 행정자치부 산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조사를 반드시 거쳐도록 돼있으며 시는 지난 2월 17일부터 '전주 종합경기장 증축 및 야구장 건립' 사업의 광범위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했다.

/김영재 기자

전주시, 폭염대비 어르신 안전 살핀다

16일까지 노인복지관· 경로당· 무료급식소 등 점검

전주시가 연일 지속되는 폭염으로 인한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에 나섰다. 전주시는 연일 강한 햇볕과 무더위가 계속됨에 따라 어르신의 건강을 살피기 위해 오는 16일까지 관내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 노인사회활동참여기관 등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9개 노인복지관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기간 동안 특강 및 동아리 활동을 이용하는 어르신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무료급식소 14개소의 위생상태, 경로당 10개소의 무더위쉼터 냉방기 작동여부 및 관리 상태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 노인사회활동참여기관 3개소에 대해서는 노인사회활동참여자의 무더

위 휴식시간(12시~17시) 활용 등의 운영실태 점검을 위한 폭염대비 건강수칙 준수여부 등을 확인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독거노인스톱지원센터 생활관리사 67명은 혹서기 중 독거어르신 안부확인 상태, 독거노인 중 증상에인 응급안전지역센터의 어르신 안전 확인 등을 점검하고 있다.

또 무더위가 끝날 때까지 폭염대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운영원자 발생 시 신속히 연락체계가 이뤄지도록 비상연락망도 함께 가동하고 있다.

이에 앞서 시는 독거노인 및 취약노인에게 후원연계를 통해 부채 4300개, 선풍기 80대, 쿨T셔츠 100장, 식품꾸러미 68상자 및 건강용품 14대를 지원한 바 있다.

/김영재 기자



'이한치열(以寒治熱)' 10일 무더운 날씨에 실내빙상경기장을 찾은 시민들이 영하의 빙상에서 스케이트를 타며 무더위를 극복하고 있다.

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 법제화 탄력

국민의당 당론으로 채택

전주시가 청년일자리 문제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35% 의무채용 법제화와 전 통시장 불법건축물 양성화 법안 제정이 국민의당 당론 채택으로 탄력을 받게 됐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김승수 시장이 어제 혁

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35% 의무채용 법안과 전 통시장 불법건축물 양성화 법안을 건의했다"면서 "비대위에서는 이를 당론 채택을 결정했으며 다음 주에 열릴 의원총회에서 추진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의 당론 채택이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으로 이어지는 등 지역인재 의무채용 법제화가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 위원장은 이날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단체장들이 노력하는 전북발전에 우리 국민의당 국회의원들도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은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광수 국회의원 역시 "전북에 오셔서 비대위를 처음 소집했는데 큰 성과 중 하나가 전 통시장의 불법 건축물 양성화하는 것과 전국 10대 혁신도시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등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당론 채택 배경을 설명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지난 9일 전주 남부시장을 방문한 박 의원장을 만나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조성된 혁신도시가 당초의 취지에 맞도록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35%이상 의무채용' 법제화를 위한 당론 채택을 건 의했다.

/김영재 기자

아내 살해한 70대 남편 구속

익산경찰서는 10일 아내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살인)로 A(7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7시 40분께 익산시 어양동의 아파트 자택 욕실에서 아내 B(72·여)씨를 아령(4kg)으로 수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새벽운동을 다녀온 뒤 욕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는 아내 B씨의 머리를 아령으로 때려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김영재 기자

U-20월드컵 전주 홍보대사 이동국·국카스텐 임명

수원 FC와 흥경기서 위촉식·축하공연 진행

한국축구의 간판스타 전북현대모터스FC의 이동국 선수와 '우리동네 음악대장'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4인조 락밴드 국카스텐이 FIFA U-20 월드컵 코리아 2017의 전주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전주시는 10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수원 FC와의 K-리그 전북현대FC의 흥경기서 축구선수 이동국과 가수 국카스텐에 대해 위촉장을 전달하고 U-20 월드컵과 개막전 개최도시 전주를 알리는 홍보대사로 임명했다.

이들은 내년 대회 종료시까지 비빔밥 축제 등 주요 행사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SNS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대회를 홍보하게 된다.

특히 위촉식에 이어 진행된 축하공연에서는 홍보대사 국카스텐이 열정적인 라이브 무대를 선보여 전주성을 찾은 2만여명의 축구팬들을 열광의 도가니에 빠뜨렸다.

이번에 U-20 월드컵 전주 홍보대사에 선정된 이동국 선수는 우리 지역 전북현대모터스FC를 대표하는 선수로 적지 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올 시즌 17경기에 출전해 8골을 기록하며 견제를 과시하고 있다.

또한 5남매와 함께 출연하는 예능

프로그램 '슈퍼맨이 돌아왔다' 출연 이후 인지도가 급상승하며 경기장 밖에서도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 이동국 선수의 홍보대사 위촉은 전주와 U-20 월드컵을 좀더 대중적으로 알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면가왕'에서 9연승 신화를 기록하며 가요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세계 락밴드 국카스텐은 오랜 무명시절에도 불구하고 탁월한 실력과 자기만의 음악 색깔을 통해 최고의 뮤지션으로 성장한 점이 젊은 선수들이 참여하는 U-20 월드컵의 열정, 도전 정신과 걸맞는다는 평가다.

특히 국카스텐의 보컬 하현우의 경우 전북 장수 출신으로 전주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것으로 알려져 우리 지역에서 열리는 국제행사를 널리 알리는 홍보대사로 위촉돼 활동하게 된다는 사실이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홍보대사로 선정된 국카스텐은 "다양한 문화와 열정이 살아있는 전주에서 열리는 FIFA U-20 월드컵 개막전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크다"며 "전국의 수많은 축구팬들이 전주에 와서 함께 즐기며 전주의 매력에 빠질 수 있도록 홍보대사로서 열심히 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영재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7)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vsc.or.kr *전자우편 : jvsc@hanmail.net